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수신: 주식회사 아트라스비엑스 대표이사 원석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31번길 185

발신: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9, 410호(여의도동, 동북빌딩)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2017년 9월 7일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발생주식의 수는 112,172주 입니다. 또한, 같은 기준으로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외 27인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위임 받은 주식의 수는 188,023주이며 이를 합하면 총 300,195주로 이는 주식회사 아트라스비엑스 총발행주식수 9,150,000주의 10,000분의 328에 해당됩니다.
3.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아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의의 목적사항

제 1호 안건: 주식액면분할 실시 결의의 건
(현재 1주당 액면가격 1000원을 100원으로 분할)

제 2호 안건: 자사주 소각 후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결의의 건

2. 소집의 이유

가. 코스닥시장 규정개정으로 분산요건 미충족 예정상태로 변경. 현 상태라면 2019년 4월경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년 이내에 상장폐지 될 수순임.

나. 관리종목 지정은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명백한 요인. 따라서 관리종목 지정이 예정된 주식은 기업가치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도 매수하지 않아 저평가를 더욱 강화.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이사는 주주가치 극대화과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단위주식수 당 동등한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는데, 관리종목 지정 예정이라는 중요하고도 명백한 사유 때문에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경영진 및 이사회 이사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관리종목 지정예정으로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저평가 상태로 상장폐지시까지 지속된다면, 자사주 매입이라는 제로섬게임 형태의 거래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상대적으로 대주주는 소수주주의 희생을 대가로 이익을 편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다. 대주주가 선임한 현 경영진은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기업가치가 가격에 반영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아 왔음.

라. 따라서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관리종목지정을 회피하고 상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액면분할과 자사주 전량소각 후 유가증권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결의하고자 함.

별첨

1.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주) 잔고증명서 1부.
2.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외 27인의 잔고증명서 및 위임장 1부.
3. 위임장 집계표 1부. 끝

2017년 9월 12일

위 발신인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윤종엽, 김봉기